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한국의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 탐색 -문화 충돌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혜란 · 장미선*

(건국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방법
 - 2.1.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
 - 2.2. 연구 방법
3. 이론적 배경
 - 3.1. 선행 연구
 - 3.2. 문화 충돌과 문화 적응
 - 3.3. 장례문화 교육의 개념과 위치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4.1. 연구 주제 선정
 - 4.2. 참여자 선정과 표집
 - 4.3. 면담 설계와 진행
 - 4.4. 분석 절차
 - 4.5. 포화 및 신뢰도 확보
5. 연구 결과
 - 5.1. 장례식 장소에 대한 문화적 차이
 - 5.2. 조의금 문화에 대한 당혹감
 - 5.3. 인사 표현 방식의 차이
 - 5.4. 장례 기간과 절차의 다양성
6. 결론

* 제1저자: 박혜란, 교신저자: 장미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장례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 충돌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례 문화는 유교적 가치관과 공동체적 사고방식, 감정 표현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심층 문화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장례 문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며 장례 문화 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제 분석을 통해 문화 충돌 경험의 주요 양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병원 장례식장의 이질감, 조의금 문화에 대한 부담, 문상 인사 표현의 어려움 등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교육에서 장례 문화와 같은 심층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는 비교 중심, 역할극 기반, 맥락 이해 중심의 교육 설계가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 탐색을 통해, 문화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한국 사회의 정서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장례 문화 교육, 문화 충돌, 문화 적응, 장기 체류 외국인, 심층 문화 교육

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국제화와 다문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내국인의 결혼 기피 현상, 남녀 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해 국제 결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입과 국제 결혼의 증가는 국내 장기 체류¹⁾ 외국인

1)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형태는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는 단기 체류, 91일 이상은 장기 체류,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는 영주로 나누고 있다. 본고에서는 장기 체류의 개념을 국내 정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단순 기능 인력, 전문 인력, 결혼이민자,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²⁾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566,961명이며, 이는 2023년보다 8.5%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으로 2023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영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968명으로 2023년 대비 9.5%나 증가하였다.

단기 체류인 단기 취업 비자(C-4)를 제외한 비자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전문 인력은 1회 최대 부여 가능 체류 기간 상한은 2년에서 5년³⁾으로 체류 기간이 길다. 단순 기능 인력은 체류 자격에 따라 1회 상한 5개월에서 3년을 부여한다.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의 형태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지만 짧게는 계절 근로를 제외한 취업 자격으로 머무르는 근로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한국 회사에서 근무한다. 또한 해당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체류 연장 또는 거주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정주하기도 한다. 외국인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만으로는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언어 이외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 정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인척, 직장 동료,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경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장래는 공동체 구성원이 슬픔을 나누고 유족을 위로하는 중요한 의례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통

영주 자격으로 한정한다.

- 2) 전문 인력은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으로 단순 기능 인력은 계절 근로(E-8),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 취업(H-2)로 구분한다.
- 3) 회화 지도(E-2)와 예술흥행(E-6)의 경우 1회 최대 2년, 교수(E-1),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의 경우 1회 최대 5년, 특정 활동(E-7)의 경우 직종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나뉜다.
- 4) 계절 근로(E-8)의 경우 1회 5개월 체류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총 8개월, 비전문 취업(E-9)과 선원 취업(E-10)의 경우 1회 최대 3년 부여에서 1년 10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과의례이다. 그러나 장례 절차와 예절은 국가와 문화에 따라 차이가 크며,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의례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문화적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례 문화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와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심층 문화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문화 교육은 명절, 음식, 의복, 인사 예절 등 표층 문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례 문화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장례 문화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즉, 장례 문화는 단순한 문화 체험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장례 문화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의 문화 적응 과정은 단순한 생활 적응을 넘어, 정서적·사회문화적 차원의 이해를 포함한다. 문화 적응 연구는 적응의 결과를 정서적 안녕과 같은 심리적 차원과 과업 수행 및 대인 상호작용 능력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해 논의해 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례와 같은 의례적 상황은 언어적·비언어적 규범과 금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으로, 동일한 체류자라 하더라도 다른 장면보다 상황 특이적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정진경·양계민,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사례연구 방법론에서 연구 문제는 사례의 맥락적 특수성, 연구자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사례가 제공하는 이해의 깊이를 고려해 설정되어야 한다(이원석, 2020).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문제 1.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장례 문화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연구 문제 2. 그들은 장례 의례의 언어적·비언어적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연구 문제 3. 이러한 경험은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내용 구성에 어

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장래 문화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서 심층 문화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방법

2.1. 장래 문화 교육의 필요성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10,323명에서 2024년 말 2,042,02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된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 인력은 2020년 43,258명에서 2024년 89,92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단순 기능 인력은 2020년 409,039명에서 2024년 477,033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결혼이민자는 168,594명에서 181,4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영주 자격 외국인 또한 160,947명에서 202,968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들의 연도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감 현황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문인력	43,258	45,143	50,781	72,146	89,928
단순기능인력	409,039	361,526	398,621	450,425	477,033
결혼이민자	168,594	168,611	169,633	174,895	181,436
영주자격	181,436	168,118	176,107	185,441	202,968
총계	802,327	743,398	795,142	882,907	951,365

출처: 법무부(2025). 출입국 통계 연보

장기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증감 현황을 보면 <표 1>에서 보듯이, 2020년 이후 모든 자격군에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기능 인력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엔데믹이 선언된 2023년에는 그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장기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취업 자격인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은 중국(95,130명), 베트남(77,075), 네팔(55,725) 순이며 결혼이민자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60,681명), 베트남(41,779명), 일본(16,214명)이다.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167,4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완(10,428), 일본(7,036), 우즈베키스탄(3,139) 순이었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단순히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 전반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 이해의 결핍은 곧 문화적 충돌이나 소외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화 적응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교육에서는 장래 문화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장래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문화교육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심층 문화 영역을 보완하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 장래 문화에서 겪는 실제 경험을 살펴보고 교육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고의 연구 방법인 사례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질적 연구는 숫자 자료의 크기나 빈도보다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중심에 두고,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접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보다 ‘왜’ 그렇게 경험되었는지, 그 경험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면담과 관찰, 문서 자료

등을 통해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통계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자료에 근거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교육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중 사례연구는 경계가 비교적 뚜렷한 대상(사례)을 정해 그 사례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보는 방법이다. 하나의 사례를 세밀하게 추적하거나 유사·대조되는 여러 사례를 비교하면서, 사례를 둘러싼 맥락(장소·관습·언어·관계)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의 층위를 함께 읽어낸다. 분석의 결과는 표본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 얻은 통찰을 유사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분석적 일반화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장례 문화를 직접 경험한 외국인을 복수 사례로 설정하고, 각 사례의 서사를 정리한 뒤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장례 문화 교육이 필요한 지점과 교육적 설계의 방향을 맥락 기반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장례식이나 문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국적, 성별, 체류 기간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일본 출신의 8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1인당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장례식장 분위기, 조문 인사 표현, 조의금 문화에 대한 인식, 감정 표현 방식, 모국 문화와의 차이, 사전 정보의 필요성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모국어를 병행해 의미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사례별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각 사례 내에서 핵심 경험을 정리한 뒤,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장례식 장소에 대한 문화적 차이’, ‘조의금 문화에 대한 당혹감’, ‘인사 표현 방식의 차이’, ‘장례 기간과 절차의 다양성’, ‘문화적 충돌’과 같은 범주를 확인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 즉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자료 수집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주요 진술과 해석 요약물 다

시 확인받는 회원 검토를 실시하였고, 분석 과정에서의 주요 결정 과정을 연구 메모로 기록하였다. 모든 인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윤리적 기준을 지켰다.

3. 이론적 배경

3.1. 선행 연구

문화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장례와 관련된 문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김미정(2016)에서는 희곡 「다시라기」와 「오구, 죽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상·장례 교육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희곡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과의 상·장례 문화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형진(2012)에서는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상장 풍속에 담긴 제 문화 요소를 의례 문화, 정신 문화, 언어 문화, 상징 문화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소를 정리하였다. 그 후 시각 자료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의미론 중심의 문화 교육 방안, 언어와 문화를 병행한 교육 방안을 언급하였다. 조영미(2016)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기관별 한국어 문화 교육 현황과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을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은 대부분 체험 위주이고 언어 교육과 연계한 문화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결혼과 제사 등의 가족 행사는 제시되는 비율은 높지만 단편적인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며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영화 「축제」를 통하여 한국의 장례 절차를 소개하며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례 의식과 함께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어휘와 문법의 수준이 다소 상이하였다. 이처럼 상·장례를 직접 수업 소재로 다룬 연구들은 주로 시각 자료나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한국

의 장례 절차와 표현을 소개하고, 학습자의 비교 문화 활동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장례 문화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 수업의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어 어떤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경험 기반의 체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한계는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와 난이도를 가늠하는 데 제약으로 남는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장례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도 중급 이상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편, 문화 충돌과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장기 체류 외국인이 새로운 규범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장례와 같은 의례 상황은 언어적 표현(조문 인사, 호칭·격식)과 비언어적 규범(복장, 몸가짐, 시선 처리), 그리고 금기·관습이 동시에 작동하는 심층 문화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 체류 단계에서 이해의 간극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문화 적응 모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합·동화·분리·주변화 등 전략의 선택과 스트레스-적응-성장의 순환으로 설명하며, 실제 연구에서도 외국인이 장례 장면에서 언어적 공손 전략 선택의 어려움, 조의금 관습 해석의 부담, 종교·가족주의 규범의 차이 때문에 당혹감이나 회피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보고된다.

정현·박서연·전희정(2017)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의 차별 경험은 구조·문화·환경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거환경의 안전도 역시 차별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는 출신국·피부색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언어·환경 요인이 일상적 상호작용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은·정보성(2023)에서도 언어능력이 외국인의 차별 인식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인으로 재확인되었다. 이 관점을 장례라는 의례 도메인에 적용하면, 높은 맥락 의존성과 촘촘한 언어·비언어 규범(조문 인사 표현, 호칭·격식, 복장·동작, 조문·헌화·분향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규범 오독이 곧바로 관계적 스트레스로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례 절차와 조문 표현에는 단계적 순서와 적절한 화용 전략이 제시되

어 있으며, 공손 전략 연구는 한국어 화자들이 체면을 위해 다양한 언어적 장치를 선택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범·전략 지식의 결핍은 의례 장면에서의 수행 부담을 키우고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의 증가, 한국어 숙달도, 사전 정보 제공, 주변 네트워크의 안내 등은 오해를 줄이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완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 연구의 상당수는 경험의 양상을 기술하거나 적응의 경로를 설명하는 데 머무는 경향이 있어, 의례 담화와 행위 규범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어려움을 교육 내용·활동·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한 처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의 실제 경험을 사례 단위로 체계화하고, 문화 적응 관점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지점을 선별하여 맥락 기반의 교육 설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2. 문화 충돌과 문화 적응

외국인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진입할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문화 충돌이다. 문화 충돌(cultural conflict)은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충돌하며 발생하는 갈등, 오해, 또는 정서적 불편을 의미한다. Turner(2005)는 이를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화 충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언어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그 문화의 규범과 기대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넘어서 결혼, 제사, 장례 등과 같은 삶의 주요 의례 상황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민감한 문화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단순한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 유교적 가치관, 공동체 중심 사고, 감정 표현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심층 문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은 주로 음식, 명절, 대중문화 등 접근성이 높은 표면 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례 문화와 같은 삶의 내면적 가치나 의례적 실천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은 실제 장례 문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거나 부

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강현화(2024)는 한국문화교육이 여전히 일상생활 중심의 단편적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으며, 학습자의 실제 생활 적응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처럼 고맥락 문화(high-context culture)에서 장례와 같은 의례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공동체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인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언어 교육과 더불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심층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의 문화간 소통 능력 함양에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다(강현화, 2024).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교재와 강의에서는 장례 문화와 같이 정서적, 사회적 의미가 깊은 주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일상적 언어 표현은 익히더라도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적 충돌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적응 실패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Choi & Kim, 2020).

문화 충돌 이후 외국인 학습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는 것을 문화 적응이라 한다. Berry(1997)는 문화 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분류하였다. 장기 체류자의 경우 장례와 같은 민감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Kim(2001) 또한 외국인의 문화 적응은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충돌과 학습, 반응이 반복되는 순환적 과정이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 언어, 감정, 행동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외국인의 문화 적응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인식 변화와 맥락 이해 능력 함양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이 요구되며, 특히 장례 문화와 같은 심층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문화 충돌을 줄이고 학습자의 한국 사회 적응력

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장례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가 실제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감정 표현, 적절한 언어 사용, 사회적 위치 인식 등 총체적인 문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문화 간 소통 능력 함양은 물론, 언어 사용의 실제 맥락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olsoy 등(2019)의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적응 과정에서 표면적인 문화 정보 전달을 넘어서, 감정 표현 방식, 의례 언어, 정서적 규범 등과 같은 심층 문화 요소를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관습을 소개하거나 암기시키는 방식보다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거나,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을 포함 시킬 경우, 문화적 긴장이나 충돌을 사전에 완화하고, 대상 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례, 제례, 문상과 같은 의례적 상황에서는 언어 표현뿐 아니라 비언어적 태도, 감정 조절 방식 등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장례 문화 교육의 방향성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장례 문화 관련 문화 충돌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 표현의 어려움, 문상 인사 표현에 대한 부담감, 예절 규범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실제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Tolsoy 등의 논의는 이러한 문화 충돌을 단순한 오해나 지식 부족의 문제가 아닌, 사전에 준비된 문화교육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할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제언은, Tolsoy 등(2019)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단순 정보 전달을 넘는 체험 중심, 비교 중심, 상황 기반의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가 실제 문상 상황에서 ‘어떤 복장을 입고’,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의미 맥락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는 문화 적응을 보다 원활하게 하며, 장기

적으로는 한국 사회 내 관계 형성과 정서적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장례문화 교육의 개념과 위치

장례문화 교육은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한 하위 영역으로서, 기존의 일반 문화교육이나 다문화교육과는 그 초점과 목적에서 차별화된다. 문화 교육이 언어 사용의 맥락적 의미와 사회적 규범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라면, 장례문화 교육은 한국 사회의 ‘의례적 행위와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한 심층 문화(Deep Culture) 교육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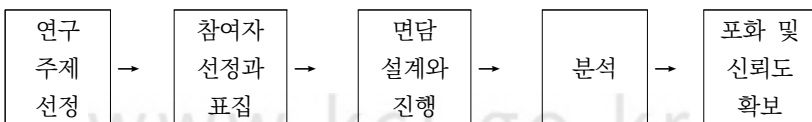
다문화교육이 상호 존중과 문화 다양성의 수용을 강조하고, 가치교육이 보편적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장례문화 교육은 특정 사회의 정서적·관계적 규범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중심적 문화교육(performance-based culture education)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문화 교육은 다문화교육의 하위 범주에 속하면서도,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 사회의 정서와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교육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장례문화 교육을 단순한 문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언어-행동-정서의 통합적 학습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 절차는 <표 2>의 순서를 따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절차



4.1. 연구 주제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장례 문화 경험을 개인별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장례 문화 경험은 사회적 관계, 감정, 언어 사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드러나므로, 참여자의 구체적 맥락을 충분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개별 참여자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간주하고, 사례 내 의미 분석과 사례 간 비교를 병행하는 집합적 사례연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⁵⁾ 본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분석적 일반화를 지향하며, 하나의 사례를 충분히 읽은 뒤 복수 사례 간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심화시키는 절차를 취하였다.

연구자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의례에 익숙한 내부자이지만, 외국인 참여자의 시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면담 전·후 연구 메모를 작성하였다. 또한 해석 과정에서 부정 사례와 대안 해석을 병행하여 연구자 위치성으로 인한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2. 참여자 선정과 표집

본 연구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장례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화충돌 및 문화 적응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장례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총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장례식 또는 문상을 직접 경험한 외국인으로 한정하였다. 의도적 표집을 통해 국적, 성별, 체류 기간, 종교 배경의 이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명을 선정하였다. 모집은 대학 내 모집과 지인 추천을 병행하였으며,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표본 크기는 주제 포화(saturation)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⁶⁾

5) 이는 '개인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현상학이나 이론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거 이론 접근법과 구별된다.

〈표 3〉 연구 대상

참여자	국적	성별	연령대	한국 체류 기간
A	중국	여	20대	6년
B	중국	남	30대	7년
C	우즈베키스탄	남	30대	5년
D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5년
E	베트남	여	20대	6년
F	베트남	남	30대	8년
G	일본	여	30대	10년
H	일본	여	20대	6년

4.3. 면담 설계와 진행

자료 수집은 반구조화 심층 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1인당 40~60분, 대면 및 화상 병행). 시범 면담을 통해 질문 문항을 조정하였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경험을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는 대면 및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가명 처리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면담은 한국어로 진행하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은 참여자의 모국어 단어나 표현을 함께 확인하고 즉시 의미 재확인(member check) 절차를 거쳤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및 전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문화충돌과 문화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 6) 다만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 수가 8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자료의 폭과 다양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장례문화 인식은 국적, 종교, 연령, 체류 기간,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본 규모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도달하였음을 판단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국적별·체류환경별 구성을 보다 세분화하고, 참여자 수를 12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비교분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성하였다. 질문은 장례 문화에 대한 첫인상, 장례식 절차에 대한 이해, 문상 시의 인사 표현, 조의금 문화에 대한 인식,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 모국 문화와의 비교, 사전 정보 유무 및 필요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필요시 보조 질문을 추가하여 심층적인 진술을 유도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질문

번호	질문 내용	목적
1	한국에서 장례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례 문화 경험 유무
2	장례식 장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병원 장례식장이 익숙했습니까?	장례 문화의 감정 탐색
3	문상 인사 표현이나 행동 방식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언어적·비언어적 문화 차이 탐색
4	조의금(부의금) 문화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부담스러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금전 관련 문화 인식 및 부담 정도
5	감정 표현 방식에서 한국과 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정서 표현의 문화적 규범 비교
6	당시 상황에서 사전 정보나 설명이 있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적 지원 및 사전 안내의 필요성 탐색
7	모국의 장례 문화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적 대조 및 적응 전략 파악
8	한국의 장례 문화를 미리 배우거나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필요성 및 교육 방식 확인

4.4. 분석 절차

〈표 5〉 자료 분석 절차

단계	분석 목적
전사 및 자료 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분석 준비
↓	
사례 내 분석	개별 사례의 의미 도출
↓	
사례 간 비교	공통점 및 차이점 탐색
↓	
주제 도출 및 정교화	핵심 주제 선정
↓	
연구자 간 검토 및 합의	해석의 신뢰도 확보

〈표 5〉는 질적 사례연구의 일반적 분석 절차(Yin, 2018; Merriam, 2009; 이원석, 2020)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실제 진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각 참여자의 면담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진술의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이때 유사한 내용이나 정서, 행동을 나타내는 구절에 코드(code)를 부여하여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예를 들어 “조의금 액수를 정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은 ‘조의금 부담’으로, “인사말이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진술은 ‘언어적 어려움’과 같이 이름을 붙였다. 이후 사례 내에서 도출된 코드를 중심으로 참여자별 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사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공통 주제와 개별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별로 반복되는 패턴을 묶어 후보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각 주제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도출된 주제는 내적 일관성과 상호 변별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였다. 최종 주제 확정 과정에서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코딩을 실시한 뒤, 서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줄이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절

차였다. 마지막으로 코드-주제-참여자 인용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각 주제가 어떠한 근거 진술에서 도출되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였다.

4.5. 포화 및 신뢰도 확보

자료 포화는 “연속된 두 면담에서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로 정의하였다. 참여자 8명과의 면담에서 신규 주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포화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여자 1인당 1~2회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주제가 더 이상 도출되지 않아 수집을 종료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에게 핵심 진술 요약을 공유하여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받는 방식의 회원 검토를 받았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동료 검토로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1인에게 분석 틀과 주제 도출 과정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또한 분석 과정의 판단은 연구 중 메모와 기록을 통해 관리하였다.

5.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의 장례 문화를 경험하면서 겪은 문화적 충돌과 그에 대한 적응 과정을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문상 경험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낯섦과 불편을 겪었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긴장과 행동의 어려움, 그리고 문화적 의미 해석의 어려움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문화 충돌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문화 충돌은 서로 다른 문화 규범과 기대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갈등, 혼란, 심리적 불편으로 정의되며(Turner, 2005), 참여자들은 장례 문화라는 심층 문화 영역에서 그 전형적인 양상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충돌 유형이 확인되었다.

5.1. 장례식 장소에 대한 문화적 차이

참여자들은 한국의 장례식이 주로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일부 국가는 장례를 집에서 혹은 종교 시설에서 진행하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낯설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는 죽음을 ‘공적·의료적 공간’에서 맞이하는 한국의 문화와 ‘가정이나 종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장례 문화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보통 집이나 절에서 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남, 30대)

“병원이 치료받는 곳인데, 죽은 사람도 거기서 보내는 게 신기했어요.” (베트남, 여, 20대)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병원은 아픈 사람 치료를 하는 곳이잖아요.” (일본, 여, 30대)

“보통 집에서 해요. 가족이 없는 경우에만 병원에서 해요. 7일간 장례를 해요. 4일~5일은 손님이 방문하지만 그 후 2일은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요. 7일 동안 집 대문을 활짝 열어 놔요.”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보통 동네에서 먼저 하고 당일에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요. 병원에서도 장례식을 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 여, 20대)

장례식 장소는 죽음에 대한 인식, 공간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이 치료와 생명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면, 집이나 절은 공동체적 추모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김시덕(2007)에 의하면 의료시설 발달과 의료보험제도의 확산으로 병원 입원 후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편리하기에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 아파트 건축 등으로 주거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석구:2016).

5.2. 조의금 문화에 대한 당혹감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조의금을 전달하는 문화도 외국인 참여자에게는 생소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였다. 어떤 국가는 조의금 문화가 거의 없거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심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직장 동료, 지인 등 폭넓은 인적 관계에서 조의금 전달이 일반화되어 있다. 조의금은 한국 장례 문화의 핵심적인 의례 요소이지만, 참여자들에게는 생소함을 불러오는 동시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조의금의 금액 결정과 명부 공개, 관계에 따른 액수 조정 등은 외국인에게 경제적 압박으로도 인식되었다.

“회사에서 장례식에 갔는데, 3만원을 넣었는데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중국, 남, 30대)

“돈을 내야 하는 문화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슬픔을 나누는 말이면 충분한데, 여기선 돈이 예의 같았어요.” (베트남, 여, 20대)

“한국처럼 홀수로 돈을 준비해요, 300위안이나 500위안이에요. 그런데 봉투에 돈을 넣지 않아요.” (중국, 남, 30대)

“한국처럼 하얀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관계에 따라서 돈을 내는 금액이 달라져요. 친척인 경우에는 3만엔에서 5만엔 정도를 내고, 직장 동료나 지인은 5천엔 정도만 내요.” (일본, 여, 40대)

“돈을 내는 경우는 하얀색 봉투에 넣는데 이름을 쓰지 않아요. 특별히 정해진 금액도 없고요, 자신이 내고 싶은 만큼 내면 돼요, 안 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10만 동 미만은 내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과일이나 과자 같은 물품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베트남, 여, 20대)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나 물건을 줘요. 하지만 모두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 주면 돼요. 부자에게는 안 줘요.”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상례는 예정된 의례가 아니므로,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력이나 현물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장 서비스와 대행업체로 인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김시덕, 2005: 66-67). 노동력이나 현물이 불필요하게 된 한국에서 조의금은 단순한 물질 교환이 아니라 ‘관계의 예의’로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상징으로, 외국인에게는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 의례 문화를 체감하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조의금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은 외국인에게 의례적 행동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문화적 소속감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5.3. 인사 표현 방식의 차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등의 한국어 인사 표현은 외국인에게 의미 전달이 어렵고, 지나치게 공식적이거나 문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절이나 인사, 복장 등 비언어적 행위 역시 문화에 따라 달라 혼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일부 참여자는 문상 인사를 준비하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우즈베키스탄, 남, 30대)

“인터넷에서 문장을 외워 갔는데, 그 상황에서 잘 안 나왔어요. 너무 어

렵고 긴 말이더라고요.” (중국, 여, 20대)

이러한 언어적 층들은 장례 문화의 정서적 소통과 직접 연결되며, 단순히 한국어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맥락에 맞는 표현 선택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죽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은 고개를 3번 숙이면 돼요.” (중국, 여, 20대)

“장례식장에 가면 식사를 하고 마당에 준비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모두 다 같이 하는 큰 기도를 기다려요.”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고인에게 절을 3번 하는데 손님이 절을 3번 하는 동안 가족들도 손님에게 절을 3번 해요. 감사의 표시로요.” (베트남, 남, 30대)

한국에서는 상주가 조문객의 조문이 끝난 후 맞절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베트남의 경우 조문객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동시에 상주가 조문객에게 절을 한다. 또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절을 하는 문화가 없으므로 한국의 장례식장에서 조의 방법을 모르거나 상주와 함께 인사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문상 인사 교류는 언어적 예절과 감정의 절제를 동시에 요구한다. 참여자들은 이를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언어 사용의 문화적 맥락 이해 부족이 초래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5.4. 장례 기간과 절차의 다양성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 시작 날짜를 가족이 상의해서 정해요. 가족이 멀리 있으면 일단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일본에서는 문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장례는 2일 동안 하는데 첫날은 저녁에, 둘째 날은 점심 때쯤 가요. 그때가 스님이 고인에게 경전을 읽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일본, 여, 30대)

“한국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지역이나 날씨에 따라서 장례

기간이 달라져요. 3일에서 7일인데, 도시는 기간이 짧고, 시골은 길어요. 보통 점심 식사 시간에 방문해서 같이 점심을 먹어요.” (중국, 여, 20대)

“집에서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가요. 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가요. 한국과 다른 것은 우리는 양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가요. 색깔도 다 검정일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검정색이면 괜찮아요. 또 혹시 죽은 사람이 아이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물어보지만 노인이면 묻지 않아요.” (우즈베키스탄, 남, 20대)

“장례식 기간은 보통 3일인데 가족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7일까지 해요.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하면 7일간 장례식을 하면서 가족을 기다려요. 물에 빠져 죽거나 어린 사람이 죽으면 기간이 짧고, 노인의 장례는 좀 길게 해요.” (베트남, 여, 20대)

“우리는 낮에 점심 식사 시간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중국, 여, 20대)

한국은 장례 기간이 고인의 사망 당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국의 장례 기간과 절차가 한국의 3일장 문화와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일본의 경우 장례 기간이 2일밖에 되지 않지만 장례 시작 날짜는 유족이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이는 멀리 거주하는 유족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다. 베트남도 멀리 거주하는 유족을 기다리는 문화가 있었으나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을 기다렸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젊은이가 사망하면 장례 기간이 짧으며, 연로하여 자연사를 한 경우에는 장례 기간이 길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장례 기간은 7일인데 밤에 사망한 경우는 오전 4시부터, 오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조문이 가능했다. 또한 한국은 조문을 할 때 일반적으로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평소에 착용하는 점퍼 등을 입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서는 장례 기간에 유연함을 보였으며 복장과 조문 시간, 식사 제공 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의례의 시간에 대한 관념과 가족 중심에 대한 문화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1973년 개정된 가정의례준칙⁷⁾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사를 지내는 날은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김중희:2014). 가정의례준칙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3일장은 제도화처럼 인식되는 체계인 반면, 일부 국가는 가족의 정서를 중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5.5. 문화적 충돌에서 문화적 적응

앞선 결과에서 확인된 문화적 충돌은 일회적 경험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학습되고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문화적 충돌에서 문화적 적응으로의 전환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한국의 장례 문화를 접한 참여자들은 공간, 언어,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낯설고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개인적인 관찰, 반복된 참여를 통해 조금씩 한국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행동을 흉내 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관계의 의미를 스스로 익혀 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서 있던 참여자들이 다음에는 절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봉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금씩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낯설이 시간이 지나며 학습과 적응의 경험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낯설고 어색한 문화적 충돌의 경험이 점차 이해와 수용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보면, 문화적 적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 → 관찰 → 학습 → 수용⁹⁾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진경·양계민(2004: 114-116)에서와 같이 적응은 정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나타난다. 참여자들 역시 장례 절차나 인사 표현 같은 실천적 지식을 배우는 한편, 유족의 슬픔을 이해하고 예의를

7) 1979년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지침으로,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의 다양한 가족 중심의 행사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1998년, 2008년 개정된 준칙을 살펴보면 상복은 한복일 경우 백색 복장이며,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하는 정서적 부분에서도 조금씩 변화해 갔다.

결국 한국의 장례 문화 경험은 이들에게 단순한 의례 참여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계 맺기 방식과 감정 표현을 배우는 문화 학습의 장으로 작용한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의 장례 문화를 경험하며 겪는 문화적 충돌과 적응의 양상을 질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장례 문화 교육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례는 개인의 죽음을 넘어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감정을 재조정하는 의례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이를 경험하는 과정은 단순한 관습 이해를 넘어 심층적인 문화적 해석과 사회적 참여 능력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였다.

첫째, 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적 낯센으로 인해 장례의 의미와 분위기를 낯설게 인식하였다.

둘째, 조의금 금액과 관계 중심의 예절 규범에서 부담감과 혼란을 느꼈다.

셋째, 조문 인사 표현의 문어적·형식적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말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침묵으로 대체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넷째, 감정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의 정서적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관계 맥락과 예의 체계 속에서의 낯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반복된 경험과 주변인의 안내 또는 관찰을 통해 점차 절차와 표현 방식을 학습하며 문화적 충돌이 '불편함 → 이해 → 수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였다. 이 과정은 정진경·양계민(2004)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이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상과 일치한다. 즉, 장례 문화에 대한 적응은 단순한 행동 모방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가치와 관계 방식을 내면화해 가는 사회문화적 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장례 문화는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심층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학습 영역임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어 문화 교육은 명절, 음식, 의복 등 표층 문화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인이 실제 생활에서 접하는 장례 문화와 같은 심층 문화는 거의 다루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례 문화 교육은 단순히 ‘검은 옷을 입는다’, ‘조의금을 낸다’는 식의 정보 전달을 넘어, 상황 맥락 속에서 왜 그러한 행동과 언어가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과정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적으로는 중급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례 상황에서의 표현’, ‘공손 전략’, ‘문화 간 비교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단기 주제형 수업이나 역할극 중심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현’, ‘조문 인사 연습’, ‘복장 · 조의금 문화 비교’ 등의 활동은 실제적인 언어 사용과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길러줄 수 있다. 또한 정규 교과 과정에서 별도의 단원으로 다루기 어렵더라도, ‘생활 한국어’나 ‘한국 문화 이해’ 과목의 일부 단원으로 실용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장례 문화 교육의 실제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비교 문화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모국 장례 문화와 한국의 장례 문화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화적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름’을 인식하면서도 상대 문화의 의미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둘째, 맥락 기반의 체험형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조문 상황이나 장례식장 방문 장면을 시뮬레이션한 역할극(role play), 영상 자료 분석, 표현 연습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감정 표현, 인사말, 비언어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실습 중심 접근은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실생활에서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심층 문화 통합형 교육과정으로의 확장이 바람직하다. 장례 문화는 단독 주제의 특강 형태보다는 ‘의례와 예절’, ‘사회적 관계와 공손 표현’ 등 기존 문화 단원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와 문화를 분리하지 않고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의례 문화 이해 워크숍’이나 ‘한국 장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향은 단순히 장례 문화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와 감정 표현 방식을 이해하며,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어 문화 교육은 표층 문화 중심에서 심층 문화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장례 문화 교육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례문화 교육의 실질적 설계를 위해서는 교수·학습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한국의 장례 의례에서 요구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예절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둔다. ‘장례 절차 이해’, ‘조문 인사 표현’, ‘복장 및 조의금 문화’, ‘감정 표현과 공손 전락’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내용으로 구성하여, 영상 시청, 역할극(role play), 모의 조문 상황 연습 등 활동 중심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비교하고 성찰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별 설계는 장례문화 교육의 실용성과 교육적 완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례 문화라는 민감한 주제를 외국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한국어 문화 교육의 범위를 표층 문화에서 심층 문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문화 충돌 경험의 세부 양상을 비교하거나, 이를 기

반으로 한 장례 문화 교육 모형 및 교재 개발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장례뿐 아니라 혼례, 제례 등 다른 의례 문화로 연구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심층 문화 교육의 통합적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민지(2023). 한국어교육학의 질적 사례연구 연구방법론적 양상, 〈인문사회21〉 14(2), 553-566쪽.
- 국립국어원(2012).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 김미정(2016). 한국어교육에서 희곡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연구: 전통 상·장례 문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시덕(2005). 현대 도시공간의 상장례 문화, 〈한국민속학〉 41, 51-94쪽.
- 김중희(2014). 건전가정의례준칙 변화 연구, 〈차문화·산업학〉 25, 1-22쪽.
- 강현화(2024). 한국어교육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이론과 쟁점, 한국문화사
- 문형진(2012). 한국 상장풍속에 담긴 제 문화요소와 그 의미를 토대로 한 문화교육 방안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5, 283-308쪽.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4). 202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 (2015).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 유효은·정보성(2023). 국내체류 외국인의 차별경험과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5(5), 181-206쪽.
- 이원석(2020).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질적연구〉 21(2), 85-91쪽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쪽.
- 정현·박서연·전희정(2017). 외국인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구조적·문화적·환경적 관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4), 307-336쪽.
- 조영미(2016). 영화 〈죽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장례 문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정연(2020). 한국과 일본의 상장례 문화 비교-카톨릭 장례미사와 위령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69, 245-264쪽.
- 최석구(2016). 한국 장례문화와 병원 장례식장의 간극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16). 한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12(1), 51-77쪽.
- 한하림(2014). 한국 심층 문화 교육을 위한 다중 텍스트 구성 방안 연구, <한국언어 문화학> 11(2), 187-210쪽
- Bennett, M. J.(1998). *Basic Concept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lected Readings.*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Gudykunst, W. B., & Kim, Y. Y.(2003).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Kim, Y. Y.(2001). *Becoming Intercultural: An Integrativ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 Merriam, S. B.(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urner, J. H.(2005). *Sociology. Prentice Hall.*
- Yin, R. K.(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필자 소개

성 명 박혜란
소 속 건국대학교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전자우편 luv317@konkuk.ac.kr

성 명 장미선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자우편 20246413@bufs.ac.kr

Abstract

Exploring the Need for Funeral Culture Education in Korea for Long-term Foreign Residents - Focusing on Cases of Cultural Conflict -

Park, Hye-ran · Jang, Mi-seon

(Konkuk University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ultural conflict encountered by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Korea during funeral-related situations,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funeral culture education. Funeral culture in Kore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deep culture, reflecting Confucian values, a collectivist mindset, and implicit emotional expressions—making it a particularly difficult domain for foreign learners to access. Recognizing the educational importance of this topic,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long-term foreign residents from China, Vietnam, Uzbekistan, and Japan who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five years and have experienced Korean funeral culture.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study identified key areas of cultural conflict, such as unfamiliarity with hospital funeral halls, discomfort with monetary condolence customs, and challenges in expressing condolences appropriat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ystematic education on deep cultural practices such as funerals within Korean language education. Moreover, educational designs that go beyond simple information delivery—incorporating cultural comparison, role-playing, and contextual understanding—are likely to be more effective. This qualitative investigation, grounded in the lived experiences of foreign learners,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expanding the scope of culture education and fostering emotional and social integration within Korean society.

[Key words] Funeral Culture Education, Cultural Conflict, Cultural Adaptation,
Long-term Foreign Residents, Deep Culture Education

투고일 2025. 10. 10 / 심사일 2025. 11. 08 / 게재확정일 2025. 11. 13

